



환기미술관

‘리브르 오브제(감상하는 책) 2005 전’

‘무조건 예쁘다고 북아트는 아니다’
시각 이미지에 작가 철학 담긴 ‘작품’
국내외 중견·신예 작가들 대거 참여

북아트는 곧 ‘예쁘다’이라는 단순한 대답에 의미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국내 북아트 분야의 개척자로 불리는 김나래 씨는 환기미술관 ‘리브르 오브제(감상하는 책)’ 2005전 을 통해 ‘북아트는 철학이 담긴 조형예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정보 전달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등 오감을 동원한 신진후 개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 전시는 삽화와 장정 등에 깊은 애정을 가졌던 고하 김환기 화백의 뜻을 기리고 북아트 분야의 저변을 넓혀겠다는 뜻에서 1998년부터 개최된 북아트 관련 전시다. 특히 올해는 해외에서 20년 이상 북아트 강의를 맡았시키고 활발한 작업활동을 해온 3인의 작품이 소개됐다. 환기미술관 큐레이터 이효가 씨는 “국내에서 여전히 생소한 분야인 북아트와 북아티스트를 일컫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특히 해외 작가들의 작품세계는 매우 다채롭고 철학적이다”고 소개했다.

미국 작가 로빈 에이미 실버버그는 커말라 신앙, 성서 등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신화적인 주제를 작품 속에 담아 관객들로부터 주목하다는 반응을 얻었다. 지난 6월 말 자신의 예술세계에 대해 강의를 가진 그는 “언어가 실제로 무엇과 소통하고 있고 그 관계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25년간 선호하게 된 ‘종이’란 재료의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자신의 이름을 붙여 ‘로빈북’이란 이름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 작가인 반 말리는 실코 스크린을 이용한 한정본과 사진 복사, 컬러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가, 예술가들의 지명을 담은 한정본을 스크린 인쇄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 표지에 ‘이야기는 끝났어’란 워트쉬인 문구를 달아놓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은 그는 2002년 판화 주문 제작과 문학적 발행을 중단한 채 오직 북아트 작업에만 몰두하게 된 시련을 알리면서 북아트를 순수예술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호주 작가 포그렛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개구리, 물고기, 꽃, 파리 등 평범한 자연의 생물군을 배열하면서 북아트 작품 속에 상상의 공간을 창조해 냈다. 그는 이런 각각의 이미지들은 관람객들의 의식 속에서 작은 이야기가 되고 그것은 곧 그들 각자의 꿈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북아트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판화가 김상구, 그래픽 작가 백금남, 전각작가 정병태 등 국내 중견 작가들과 워크숍 강요를 통해 발휘된 젊은 작가 박현정, 이정미, 이주은, 이현주 등이 자신의 북아트 작품을 들고 나왔다.

한편 환기미술관은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기존 작업세계를 북아트와 결합시켰다”며 북아트는 시각적 이미지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책과 관련해 특정 작가의 철학을 담은 엄연한 ‘작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취재_김현민 기자 | 사진_채근환 | 환기미술관

▲ ‘종이’ 재료의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싶다고 밝힌 미국 북아트 작가 로빈 에이미 실버버그의 작품.

▼ 책의 삽화와 장정 등에 깊은 애정을 가졌고 고하 김환기 화백의 뜻을 기리고 북아트 분야의 저변을 넓혀겠다는 취지로 개최된 ‘리브르 오브제(감상하는 책) 2005전’

